‘기생충’ 한국영화 최초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아카데미상 수상 가능성도 높아…각본·감독상은 불발

봉준호 “놀라운 일…우리가 쓰는 단 하나의 언어는 영화”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영화상을 거머쥐었다. 〈관련기사 17면〉

한국 영화가 골든글로브에서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골든글로브는 아카데미와 더불어 미국 양대 영화상으로 꼽히며 아카데미 전초전으로 불린다.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HFPA)는 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올해 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영화상 수상작으로 ‘기생충’을 선정해 발표했다.

‘기생충’은 최우수 외국어영화상(베스트 모션픽처-포린 랭귀지) 부문에서 스페인 출신 거장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페인 앤 글로리’를 비롯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프랑스), ‘더 페어웰’(중국계·미국), ‘레미제라블’(프랑스) 등 쟁쟁한 작품들과 겨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틀어 한국 콘텐츠가 골든글로브상을 받은 것은 ‘기생충’이 최초이며, 후보 지명 자체도 최초였다.

‘기생충’의 골든글로브상 수상은 칸영화제 작품상인 ‘황금종려상’ 수상 쾌거에 이어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계의 높은 벽을 넘은 기념비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봉준호 감독은 수상 직후 소감을 통해 “놀라운 일이다. 믿을 수 없다. 나는 외국어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어서, 통역이 여기 함께 있다. 이해 부탁드린다. 자막의 장벽, 장벽도 아니다. 1인치 정도 되는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봉 감독은 이어 “오늘 함께 후보에 오른 페드로 알모도바르 그리고 멋진 세계 영화 감독님들과 함께 후보에 오를 수 있어서 그 자체가 이미 영광이다. 우리는 단 하나의 언어를 쓴다고 생각한다. 그 언어는 영화다”라고 벅찬 소감을 밝혔다.

‘기생충’의 골든글로브상 수상으로 내달 9일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에서도 수상 가능성을 한껏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생충’은 아카데미 예비후보로 국제영화상(옛 외국어영화상), 주제가상 두 부문 후보에 올라 있으며 최종 후보작은 오는 13일 발표된다. ‘기생충’은 각본·감독상은 물론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 후보로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기생충’은 그러나 기대를 모은 감독상과 각본상 수상에는 실패했다. 감독상은 영화 ‘1917’의 샘 멘데스에게 돌아갔으며, 각본상은 ‘원스 어폰 어 타임…인 할리우드’를 연출하고 시나리오를 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받았다. ‘1917’은 극영화 부문 작품상의 영예를 함께 안았고 ‘원스 어폰 어 타임…인 할리우드’는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작품상과 남우조연상(브래드 피트)을 받아 3관왕에 올랐다.

한국계 여배우 아콰피나는 ‘더 페어웰’로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여우주연상의 영예를 안았다. 골든글로브 영화 부문에서 한국계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한국계 여배우 샌드라 오가 TV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은 이후 2년 연속 한국계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한편 ‘기생충’은 지난해 5월 열린 제72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뒤 각종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수상 행렬을 이어왔다.

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올해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받은 외국어영화상까지 포함하면 50개 가까운 트로피를 해외에서 들어 올렸다. /연합뉴스

영화 ‘기생충’으로 美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 /연합뉴스

도올 김용옥 ‘전남 인재 학당’…인문·철학 갖춘 지역인재 양성

해남 가학산서 입학식

62명 학생 대상 10일까지 강좌

도올 김용옥 선생이 직접 강의하는 ‘전남 인재 학당’이 6일 해남 가학산 휴양림에서 입학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광주일보 1월 2일자 16·17면 참조〉 전남도는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이번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문·철학적 소양을 갖춘 지역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6일 “전남도내 각 시·군에서 선발된 6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남 가학산 휴양림에서 10일까지 전남 인재 학당을 연다”고 밝혔다. 전남 인재 학당의 강사로는 도올 김용옥 선생, 전종욱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원 등 도올의 제자 5명이 나서며 논어 강좌, 역사 탐방, 야간 분반 토론 등의 방식으로 강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7일 김영록 전남지사 특강, 8일 호남가 배우기 및 가야금 특강, 9일 나주 국립박물관·나주 반남고분군·화순고인돌공원 역사탐방 등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하루 6시간씩 집중 강의하고, 저녁시간에는 담임교수를 정해 분반을 나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신청을 받아 선발한 교육생은 모두 62명으로, 서부권 25명, 동부권 15명, 중부권 22명 등으로 구성됐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6일 해남 가학산 휴양림에서 열린 ‘전남 인재 학당‘ 입학식에 참석한 학생 62명에게 인사법을 지도하고 있다. 전남도의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0일까지 계속된다.

전남도는 이번 프로그램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정기적인 개최해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매년 100억원의 예산으로 예능인재 키움, 가족 캠프, 전남 인재 학당, 무한도전 프로젝트, 글로벌 체험캠프, 대학생 비전 캠프, 도비유학생 지원, 산업인재 현장연수, 전남스타 200인 육성, 선도인재 육성 아카데미 등 ‘새천년 인재 육성’을 위한 14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말 엄격한 심사를 거쳐 9개 분야 926명의 ‘으뜸인재’를 발굴한 전남도는 우선 77명의 인재에 대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올 김용옥 선생이 지역에 내려와 인재 육성에 나선 것이 처음이며, 이 지역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단기간이어서 아쉽다는 의견이 있어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좋아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0명 중 7명 만족

문체부 ‘2019 인지도 조사’

우리 국민 10명 중 5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복합문화예술기관으로 인지하며, 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한 10명 중 7명은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아시아문화전당이 문화예술 창·제작 발전소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홍보마케팅 등을 통한 복합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역할 또한 긍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이 발표한 ‘2019 인지도 조사 결과’에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를 제외한 전국 19세 이상 국민 46.7%, 광주 지역은 97.0%가 ACC를 각각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6 인지도 조사결과 대비 14.8%p, 1.7%p 증가한 수치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 92.2%, 부산·울산·경남 68.8%, 서울 50% 순이었다. 충청·세종·대전 지역의 인지도는 39.8%로 가장 낮았다.

ACC 인지도 경로는 전국과 광주지역 모두 지상파 TV채널이 21.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누리소통망(SNS), 지인, 신문기사, 홈페이지 순으로 집계됐다.

ACC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전당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선 74.3%가 전반적인 만족도를 나타냈다. 매우 만족 19.6%, 약간 만족 54.7%, 보통이라는 답변은 21.5%였으며 약간 불만족 3%, 매우 불만족은 1.1%에 그쳤다. 특히 방문 경험자의 무려 82.2%가 ACC를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랜드마크 역할 평가와 관련, 80점 이상의 후한 점수를 준 응답자는 64.5%에 달했다. 이 같은 응답률은 지난 2015년 ACC 개관 이후 지역민의 문화예술 관람률과 여가 만족도가 각각 4.2%p, 4.5%p 증가한 것과도 상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ACC는 개관 이후 지금까지 ‘실험적 문화발전소’로서 대형 창·제작 공연 ‘무사’를 비롯해 700 여 종의 다양한 창·제작물을 개발해 선보였다. 아시아-한국-지역을 잇는 문화플랫폼으로서 아시아문화주간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지역공동체상생협의회와 업무협약 등 다양한 교류협력에도 앞장 서 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전남연구원 신임 원장후보자추천위 조만간 개최

광주전남연구원이 조만간 신임 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보자 적격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6일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공모에 이어 이날 끝난 재공모에서도 고위 공직자 출신 1명만이 원서를 제출하자 관련 절차에 따라 후보자추천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위원들의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원장 선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가려 후보자 1명을 내정하면 시·도의회 공동 인사청문회를 거쳐 신임 원장으로 최종 임명된다.

지난 2015년 민선 6기 광주·전남 상생을 위해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을 통합한 뒤 취임한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논란 끝에 조기 사퇴하고, 이어 취임한 박성수 원장은 지난해 11월 연구원 이사회에서 임기 3년에 연장 1년 등 4년이 끝나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올해로 통합 5년째를 맞는 광주전남연구원이 연구·성과·창의 중심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역여론이 높아 추후 열릴 추천위원회 회의, 청문회 등에서는 연구원 혁신안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 구	·동 광 266-1920	·문 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양 산 571-7658	·오 치 266-7601
	·용 봉 433-1503	·우 산 433-1503	
동 구	·남 광 675-5530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중 앙 222-9054	·충 장 222-8171	
남 구	·남 부 652-0175	·백 운 651-1833	·봉 선 675-5530
	·송 하 675-6605	·진 월 671-7276	
서 구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 천 376-7153	·치 평 376-6511	·풍 암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첨 단 973-2900
	·하 남 955-0451	·광 산 944-0444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융20억포함)
힐링센터
공동투자자 모심
■ 개인명의 재산을 법인으로
100% 전환 후 지분 50:50
■ 공동대표 등기 후 투자자께서 100% 운영
■ 투자금액 13억5천만원
(힐링센터 시설 리모델링 비용)
소유자 : 010-7570-7525
(나주시 남평읍 풍림죽림길 8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월산동 돌고개역 인접 소방도접 2층 주택 땅 106㎡ 집 112㎡ 공방등 적합 1억3천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해안도 인근 1130㎡ 전망 좋음 1억3천
• 서구 마륵동 도로접 땅 378㎡ 장기투자에 좋음 대지임 5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땅 664㎡ 주택 124㎡ 4억3천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달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최고 평당 23만원
• 영광군 염산면 신성리 땅 2648㎡ 주택 좋음 전원생활 적합 1억7천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약국용 건물과 교환 가능 20억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찰·화가 화실·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상가건물
• 백양사와 내장사 사이 추령고개 땅 403㎡ 가게 197㎡ 커피숍·편의점 적합 1억3500
• 서석동 조대앞 4층 상가 땅 405㎡ 건물 919㎡ 임대 보증금 6천 월 280, 12억
• 운암동 아파트상가지하 205㎡ 매입 2억 창고 사무실 적합 은행7천 매도1억6천
• 충장로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1200 매도 26억
• 농성동 상공회의소 뒤편 소방도접 상가주택 땅 156㎡ 건물 140㎡ 4억2천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유동 신축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텔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광산구 복룡동 그린벨트 답 3002㎡ 도로접 투자가치 최고임 5억5천
• 목포대 부근 청계면 도림리 2종주거지 답 4413㎡ 감정 5억7천 농협 4억3천 매도 1억천
• 화순군 동면 서성제 무등산 밑 광주 인근 최고별장지역 은행 2~3억 있는 별장과 상가건물·원룸·나대지 등과 교환원, 매도는 5억~7억임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마트·식당·창고 등 적합 은행 5억 교환 가능 9억2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